

주간기도정보

2026. 4. 28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을 위한 기도 자료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한국교회, 긴 하락세 멈추고 반등의 신호탄 쏘나”

무종교인 60% 시대, 기독교인 비율 18%로 회복세 진입



한국교회가 지난 20여 년간의 긴 침체기 이후 완만한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목회데이터연구소(소장 지용근)가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04년 21%로 정점을 찍은 기독교 비율은 이후 약 10년간 성장이 멈춘 채 정체되었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23년 16%까지 내려앉았다. 그러나 2024년 17%, 2025년 18%로 2년 연속 회복세를 보이며 반등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종교 인구 전체로도 반등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종교를 가진 인구는 2024년 3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2025년에는 40%로 3%

포인트 반등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김진양 부대표는 “한국사회가 무종교 사회로 가다가 반등의 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청년 세대의 종교 지형이다. 19-29세에서 기독교 비율은 14%, 30대에서는 16%로, 같은 연령대 불교(4-6%)와 가톨릭(6-7%)을 두세 배 이상 앞선다. 전반적인 종교 이탈 현상 속에서도 종교를 선택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기독교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김 부대표는 “한국교회가 청년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다른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들을 교회로 더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청년층 선교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낙관하기 이른 지표도 뚜렷하다. 현재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은 전체인구의 60%에 달하며, 이들 중 무려 78%가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김 부대표는 “이런 무관심은 세속화 사회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으로 종교가 현대인들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2014년에는 전체 응답자의 47%가 “종교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2021년에는 18%로 급감해 종교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최근 10년 간 급속히 감소했음을 보여주었다. 김 부대표는 “한국교회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매우 강해졌다.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영향력 감소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대표는 “수치상의 반등에 안주하기보다, 복음의 본질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청년층에서 확인된 기독교적 잠재력을 실제적인 신앙 성숙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도24365 본부 종합).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광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요한계시록 3:1-2)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마태복음 11:16-17)

하나님, 한국교회가 오랜 침체기를 지나 반등의 조짐이 보인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교회 건물 안으로 돌아오는 것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회개는 다른 것이기에 이 상황을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하셔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는 공활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 세대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복음에 관심이 없는 이 무감각한 세대 가운데 복음의 대각성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소서. 저들이 깊은 목마름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교회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루 16시간 노동에도 손에 남는 건 ‘10달러’… 북한 외화벌이의 그늘

국제 기준상 강제노동 지표 다수 해당… 구조적 인권 침해 우려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국제 기준상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노동 실태가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한 강제노동 기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채무 속박, 여권 압수, 이동 제한, 임금 미지급, 과도한 노동시간, 감시와 협박 등 11개 지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는 이러한 요소들이 단순히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작동한다는 점이다. 여권이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하고, 채무에 묶이면 지시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감시 속에서는 의사 표현조차 제한된다. 이 같은 구조적 통제는 사실상 탈출을 어렵게 만든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2024년 기준 약 40개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가 이러한 착취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5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자들은 ‘국가 할당량’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 채우기 위해 하루 최대 16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을 감당하지만, 각종 공제 이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극히 적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빛이 누적되며, 1년 내내 일하고도 남는 것이 없는 사례도 보고됐다.

작업 환경 역시 열악하다. 일부 노동자들은 고층 작업 중 안전사고를 겪거나 부상을 입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증언됐다. 이 같은 위험 속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은 가족에게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압박 때문에 일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 지역에 따라 환경 차이도 나타난다. 러시아에서는 비교적 외부 접촉이 가능한 건설 현장이 많은 반면, 중국에서는 공장 중심의 폐쇄적 환경에서 통제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산업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전체 시스템이 중앙에서 설계된 구조적 착취라는 점은 동일하다고 분석한다.

최근에는 중국 내 임금 체불 문제로 노동자 집단 반발 사례가 보고된 가운데, 전쟁 이후 노동력 부족을 겪는 러시아로 파견이 증가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러시아에서는 소규모 단위 배치와 내부 감시로 인해 집단 행동이 어려운 구조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탈출을 원하는 노동자 보호, 현장 모니터링 강화, 중개자 책임 추궁, 강제노동 생산물 유통 차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노동자들은 보다 현실적인 요구로 안전한 작업 환경과 적절한 노동시간, 가족과의 연락 보장을 가장 절실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출처: 기도24:365본부).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예레미야애가 3:32-33,40)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록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히브리서 4:9-11)

하나님, 약 40개국에 흩어져 있는 10만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눈물 어린 고초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봐 주십시오. 북한 공산정권에 의해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외화벌이에 이용되어 말할 수 없는 노동 착취로 고통하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구원자를 향한 목마름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주의 본심이 아님을 저들로 깨닫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안식하게 될 그날을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비록 삼엄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듣도록 역사하사, 자신들의 행위를 살펴보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대안학교 학생 73% 학교생활 만족, 일반학교보다 20% 포인트 높아”

만족도는 높지만... 학비·대입·교사 역량은 여전히 숙제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일반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의 경우, 대안학교 만족 비율이 일반학교의 2배 이상 높았으며, 만족의 강도 역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와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는 지난 16일 서울 경신중고등학교 언더우드기념관에서 ‘기독교 대안학교와 일반학교 학교만족도 비교조사 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김진양 부대표의 발표에 따르면,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도에서 일반학교 학생은 53%, 대안학교 학생은 73.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매우 만족한다’는 강한 긍정 응답은 대안학교 학생(38%)이 일반학교 학생(16.6%)의 두 배 이상이었다. 학부모 격차는 더욱 극명했다. 일반학교 학부모 만족도는 38%(매우 만족 5.8%)에 그친 반면, 대안학교 학부모는 91%(매우 만족 65.6%)에 달했다.

일반학교와 대안학교의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항목은 ‘신앙 교육’(대안 93.8% vs 일반 29.4%), ‘가치관 형성 교육’(96.1% vs 43.2%), ‘수업 방식’(87.6% vs 38%)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 박상진 석좌교수(한동대)는 “일반학교 학부모가 학교 시설 등 물리적 환경에 주목할 때, 대안학교 학부모는 올바른 가치관 교육과 신앙의 진정성, 친구 공동체를 주요 만족 요인으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안학교의 현실적 과제도 함께 언급했다. “대안학교 학생의 압도적 불만족 1위가 공동체 내 갈등”이라며 “좁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회피하거나 무리를 전환하기 어려운 환경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학비 문제나 대학 진학 등에 대한 불안감, 교사의 역량 부족 등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박교수는 학부모들에게 신앙적·교육적 가치관에 따라 능동적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학교 선택권’ 의식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교육 당국에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회복과 ‘교육 바꾸쳐 제도’ 도입을 촉구하며 대안학교에는 입시 위주가 아닌 신앙적 관점의 구체적 진로 로드맵 제공과 교사 연수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조형래 전인기독교학교 교장은 대안학교를 공교육의 보조적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학부모들은 ‘대안’이 아닌 ‘기독교 학교’를 원한다”며 “진화론과 유물론이 지배하는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가치관을 지키려는 독립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출처: 국민일보, 아이굿뉴스 종합).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시편 86:11)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에베소서 6:13)

하나님, 신앙교육과 바른 가치관으로 교육하는 기독교 학교를 허락하사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하며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독교 학교가 공교육의 ‘대안’으로써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도를 부지런히 가르쳐 다음세대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세대로 세우게 하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는 자들을 축복하사 해산의 고통이 있다할지라도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어 새 생명을 낳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여러 문제에 있어서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다음세대 안에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복음과 기도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능히 모든 악을 대적하며 승리하는 주의 교회로 일어나 그날을 향해 전진하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도실1 -
- 기도실2 -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